

살림살이와 그 이야기들을 두루 찾아다니는 일이 직업인 탓에, 남들이 한발에 두어 번 가는 산을 날마다 오른다. 사람에 얽힌 여러 단란한 사연들을 좀 더 헤아리고 이해하는 데 산을 오르는 일이 적잖은 도움이 되어서 버릇처럼 산을 다니게 되었다.

며칠 전, 강릉도와 경기도 어름에 있는 여러 봉우리와 그 일대 고을들을 돌아보는 능선 종주를 하면서 우연히 두 사람을 만났다. 깊은 산속에서 사람 본 것이 반가웠고 그들이 반색을 하는 눈치에서 뜻하지 않게 짐짓을 함께하게 되었다. 자연스레 서로의 처지를 밝히게 됐고 뜻밖에도 두 사람은 곁보기와 달리 훨씬 가까운 노인이었다.

계란말이와 오징어젓갈, 열무김치, 그리고 제육볶음 등으로 맛있는 점심식사는 한동안 이어졌다. 그러면서도 이런 산길은 상당한 산행 경험이 있어야 찾을 수 있는 깊고 험한 곳이라서 노인이 찾아가는 아무래도 무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자못 궁금해 했는데 육군 상사로 전역했다는 분이 대답을 들려주었다. 이 달 중순쯤 백두대간 강릉도 구간을 종주할 작정이었고 이 산행은 그 거사를 대비하기 위한 수개월에 걸친 훈련이라는 말이었다. 계란말이를 먹다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이 더 무릎을 쳤다. 여태 군인연금으로



불자 세상보기

노익상

다큐멘터리 사진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편하게 살다가 배우자와 혼기에 이른 딸이 몇 해 전에 세상을 뜨자 죽을 결심까지 했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본 텔레비전에서 한 장애인이 허팔라야를 오르는 장면과 그들을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을 고쳐먹었다는 말을 담담히 들려 준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국인 우주인 선발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수만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도전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두 사람도 알고 있었고, 더구나 그들 포레 노인이 이번 체력 시험에 통과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넘치, 그것은

부유한 처지여서 가능한 일 아니었겠냐며 편죽을 곁어 보았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물론 경제적 형편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재발가문을 이끌어 오면서도 많았을 법한 유혹과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모습에 고개가 끄덕여지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잠시 흔들렸던 그간의 생각이 다시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덧붙여, 그 노인이 우주인으로 선발 돼 우주공간을 여행하기를 바란다면서, 자신들도 차분하게 준비하여 두터, 청옥, 오대, 점봉, 설악산을 넘어

마침내 항로봉에 이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나는 두 사람이 종주에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그 즈음해서 갖게 되었다. 이렇게 단정하듯 결론을 내린 데는, 해거름까지 함께 한 산행에서 자연스레 생 각이기도 했다. 젊은이 못지않은 체력을 확인한 것도 뒷받침 되었지만, 무엇보다 그들은 그 나이가 무색하게 분명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실제로 여러 달에 걸친 훈련과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나이를 체력 그리고 그들이 처한 환경까지도 이겨내고 있었거다.

내 책상위에는 지금 그 우주인 선발에 관한 내용과, 86세 된 일본 여배우가 아직도 현역으로 무대에 서고 있다는 기사가 놓여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가, 다음달 즈음해서 이 분단된 국토의 마지막 봉우리 항로봉에 닿았을 그들을 생각해 본다. 포레 노인이 우주인 선발에 나선 것 처럼, 마침내 항로봉에 다다랐을 때, 그것은 본인의 만족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임하기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와 계층, 그리고 이념에서 오는 차별과 내침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값진 일이기도 하다. 대수롭잖게 치부해 버렸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라는 광고 카피가 새삼 떠오르는 순간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좋은 일로 세상에 알려지기는 어렵다. 굶은 일로 알려지기는 쉽다. 기사거리의 속성이다.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아니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불만찬 기사다.

안으로 옳으나 겉으로 평정을 보이던 불교계에서 저자의 관심을 끌 일이 발생했다.

순천 선암사에서 불교계를 긴장시킨 내분이 일어난 것이다. 부끄럽고 참혹하다. 내막이야 어떻든 몸매 맞기 가장 좋은 곳이 종교계, 특히 불교계다. 조계종과의 대표적 분규사찰인 선암사에서 태고종 내부의 갈등으로 반목해 경찰병력까지 요청했다니 '분규속의 분규'라 해야 하나?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까지 가지 않고 진정 국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있는 듯하다. 풀은 것은 티끌이라 한다면 세간법에 충실하자면 백만 천번 티끌이라 할 사건이 많다.

티끌에서 싱싱한 새살이 돋는다면, 썩은 부위 도려내 혁명처럼 새 동치가 필립 살아난다면, 당장 도려낼 일이 부지기수다.

분규사찰에서 '내분' 이라니...

불교가 종교로서의 면모와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통해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자리를 분명하게 지켜 왔다. 그러나 근현대 들어 잦은 분규를 여과없이 드러내 보임으로써 사회적 지탄을 한 몸에 받은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주로 조계종의 내분이 폭력적으로, 비불교적으로 비쳐지면서 국민들에게 준 상처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등축제라든가 템플스테이, 각종 대형 법회 등을 통해 빠른 '회복의 능력'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썩은 것을 도려내는 아픔과 새살을 돋게 하는 지혜를 '회통'시키는 일이라 건강회화할지 모르나 어떤 경우에도 분규나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드러내 치료하는 방법이 있으면 드러내지 않고 고치는 지혜도 있을 것이다.

선암사 사태, 그간 조계종과 긴장관계를 유지해 온 현장에서 종단의 내부갈등에 의해 경찰병력이 동원되었을 때 불자들은 1994년이나 1998년을 떠올렸을지 모른다. '분규사찰'의 대명사처럼 불린 선암사에서 내분이 일어나니니 될 말인가. 태고종은 하루빨리 내분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보하고 화합해 전통종단의 본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우상(대진대 겸임교수)



이렇게 들었다

공직윤리

한 오리의 털과 한 개의 겨자알이라도 모두가 중한 과보가 있나니 처리려 손을 끊을 지언정 자기 재물이 아닌 것을 취하지 말라. 특히 공직자는 항상 청렴한 마음을 갖고서 선근을 키워야 한다.

<능엄경>

대통령상과 훈장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준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돈과 향응을 받은 농림부 일부 공무원들이 9월 5일 경찰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죄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피의자들은 강력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이 밝힌 이들의 행각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처구니없다. 이들은 업무과정에서의 단순한 일탈행위 차원을 넘어 수백 자체가 지능적인 조직범죄 형식까지 띠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한 50대 사무관의 경우 2002년 11월 '전통식품 베스트5 선발대회'를 주관하면서 식품업체 대표 2명에게 심사위원 명단과 맛과 디자인 등 심사기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받게 해줬다고 한다. 그는 그 대가로 2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하니 공직자로서 포상을 받아 개인 잇속을 챙긴 추한 행동을 한 것이다.

또있다. 8월 31일에는 2000~2002년 철도청 재직 시절에 경부선 확장공사 도시가스배관 등 시설공사 보상비 29억원 을 횡령한 건설교통부 6급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차례 수억원씩의 국고가 별 제아장치 없이 말단 직원의 손에 의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것이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사회질서와 원칙을 준수하며 양심과 윤리에 따라 생활하는 구성원 각자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런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파렴치한 공직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인 인과(因果) 법칙을 다시한번 되새겨 보길 권한다.

김주일(해제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독자여론 조사

조계종 포교원이 최근 <한글통일법요집>을 완간했다. 한편으로 된 법요집에 익숙한 불자들이 과연 한글 법요집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까.

현대불교신문 인터넷뉴스사이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는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독자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사찰의 범죄가 한글로 진행되는 데 대해 찬반을 묻는 질문에 대해 총 참여자 172명 가운데 86%인 148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대는 14%에 해당하는 24명뿐.

한글법요집이 이처럼 지지받는 것은, 독경을 하거나 법회에 임할 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많은 불자들이 토론글에서 "젊은이들이 오게 하려면 한글화가 필요하다" "초심자가 이해하기 쉽다" "불교 생활화에 도움이 된다" 등의 이유를 들며 <한글 통일법요집>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조사기간 8. 23~9. 5 참여자 172명)

한글통일법요집이 최근 완간됐습니다. 반아심경은 물론 예불·천도·다비시 등 사찰의 법요식이 한글로 돼 있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사찰의 범죄가 한글로 진행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148명(86%) 반대 24명(14%)

독자여론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보안 절실한 사회복지사 처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은 아마도 자비일 것이다. '어리석은' 증상을 교화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와주는 자비행은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한국 불교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활동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불교는 그와 거리가 멀다.

현대불교신문 594호 4면에서 다뤄진 사회복지사의 암담한 현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한국불교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기사에 따르면 불교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우가 열악하다고 한다.

주위에 보면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기관이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지금까지 양적인 팽창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서비스의 질도 생각해봐야 할 시점 아닌가 싶다. 종사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서비스의 질은 자연히 좋아질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불자들을 대신해서 자비행을 실천하는 손과 발이다. 이들이 방긋방긋 웃으며 양질의 서비스를 펼칠 때 포교 또한 절로 되지 않을까.

남동수(서울 도봉구 방학동)

승려법 개정 외면에 유감

조계종의 승려법 제5조 '승려의 승랍은 비구, 비구니 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한다'의 부칙조항인 '이 법 제5조에 정한 사항은 불기2539년(1995년) 이후 사비, 사비니계를 수지한 자부터 적용한다'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2500여 명의 스님이 승랍기간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번 171차 중앙종회와 행정성과 소급입법 문제로 피해를 입은 종도 770여 명의 청원으로 제출한 승려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지 않은 것은 종도들의 여망을 저버린 배신행위다. 종단 개혁으로 법이 바뀌면서 95년 이전 스님들은 출가와 동시에 승랍을 인정받는 반면 그 뒤로 출가한 스님들은 구족계 수지 후부터 승랍이 기산되는 모순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예외 조항으로 단일계단을 이수한 '1995년 이전 출가자는 출가일로부터 기산한다'로 수정하면 간단한 문제 일수 있었다. 종도들이 위대한 입법 권한을 기록된 부러듯 한 13대 중앙종회는 각성해야 한다.

대경(서울 종로구 부암동)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 마음조정법 고급 과정모집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귀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神 임상최면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 해리치유법, 압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참선공(參禪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무공향양 現 卍 新선암 주지 現 卍 參선공 협회 총재 現 卍 치유명상 협회 총재 現 卍 임상최면 협회 총재

참선공의식 사례

-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몸이 180° 돌아가서 한의원 병원, 기공, 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60세 중년 스님은 헤어져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월부터 오른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걸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고등학교 2학년때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몰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50세 중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리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발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지도자고급과정

일제일 : 2006. 9. 21 (목요일) 14:00 - 18:00 (10회 과정) (선착순 예약)

전 수 비 : 200만원

일 급 계 좌

조용수 995-04-648955 예금주: 이영하

Table with 2 columns: 불교심리철학, 서양 심리철학. Rows include: 사마타 수행법, 위빠사나 수행법, 조상 천도 해탈 비법, 빙의·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조상영가 보는법, 육효 신 비법

卍 新선암 대한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